

한문문법 고사성어 원문연습

1. 苛政猛於虎

孔子過泰山側，有婦人哭於墓者，而哀。夫子式而聽之，使子路問之曰：“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而曰：“然。昔者吾舅死於虎，吾夫又死焉，今吾子又死焉。”夫子曰：“何爲不去也？”曰：“無苛政。”夫子曰：“小子識之，苛政猛於虎也。”

2. 矛盾

或問儒者曰：“方此時也，堯安在？”其人曰：“堯爲天子。”“然則，仲尼之聖堯，奈何？聖人明察在上位，將使天下無姦也。今耕漁不爭，陶器不甌，舜又何德而化？舜之救敗也，則是堯有失也，賢舜，則去堯之明察；聖堯，則去舜之德化，不可兩得也。

楚人有鬻楯與矛者，譽之曰：‘吾楯之堅，莫能陷也。’又譽其矛曰：‘吾矛之利，於物無不陷也。’或曰：‘以子之矛陷子之楯，何如？’其人弗能應也。夫不可陷之楯與無不陷之矛，不可同世而立。今堯舜之不可兩譽，矛楯之說也。”

어떤 사람이 유가사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묻길, “바야흐로 이 때에, 요임금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사람이 말하길, “요임금은 천자였다.” “그렇다면 즉 공자가 요를 성인이라고 여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인은 밝게 살피고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장차 천하로 하여금 간사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농업과 어업에 싸움이 없고, 동쪽에서 나는 도자기들이 조잡하지 않았다면, 순이 또한 어떻게 덕으로써 교화를 하였겠는가?

순이 어그러진 것을 구제했다면, 즉 이는 요임금에게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임금을 어질다면 여긴다면 즉 요임금이 밝게 살핌이 없어야 하고, 요임금을 성인으로 여긴다면 즉 순임금이 덕으로써 교화함이 없어야 한다. 양 쪽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초나라 사람으로 방패와 창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것을 자랑하여 말하기를 "내 방패는 단단하여 꿰뚫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그 창을 자랑하여 말하기를 "내 창이 날카로워 어떤 물건도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의 창으로 네 방패를 뚫으면 어찌 되는가?"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릇 꿰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함이 없는 창은 같은 시대에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요와 순 양쪽을 동시에 칭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창과 방패에 얽힌 이론이다.

3. 狐假虎威

荊宣王問群臣曰：“吾聞北方之畏昭奚恤也，果誠何如？”群臣莫對。江乙對曰：“虎求百獸而食之，得狐。狐曰：‘子無敢食我也。天帝使我長百獸，今子食我，是逆天帝命也。子以我爲不信，吾爲子先行，子隨我後，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虎以爲然，故遂與之行。獸見之，皆走。虎不知獸畏己而走也，以爲畏狐也。

今王之地方五千里，帶甲百萬，而專屬之昭奚恤。故北方之畏奚恤也，其實畏王之甲兵也，猶百獸之畏虎也。”

(기원전 4세기 초, 초(楚)나라 선왕(宣王) 때의 일이다.) 형땅의 선왕이 신하들에게 "듣자하니, 위나라를 비롯하여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재상 소해홀(昭奚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과연 진실로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 신하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 위나라 출신인 강을(江乙)이란 변사가 초나라 선왕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왕족이자 명재상으로 명망 높은 소해홀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강을은 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어찌 한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소해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을 찾아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가 말하길 “그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말라. 하느님이 나를 시켜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미덥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그대를 위하여 앞서 갈 것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르면서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감히 달아나지 않는가를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그럴 듯하게 여겨서 드디어 그와 함께 가니 짐승들이 그들을 보고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가 두려워서 달아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여우를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하의 땅이 사방 오천리이고, 군사 백만을 소해홀에게 전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초나라의 병력, 곧 전하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백수가 여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4. 臥薪嘗膽(와신상담)

伍員字子胥，楚人伍奢之子，奢誅而奔吳，以吳兵入郢，吳伐越，闔廬傷而死，子夫差立，子胥復事之，夫差志復讐，朝夕臥薪中，出入使人呼曰，夫差，而忘越人之殺而父耶？周敬王二十六年，夫差敗越于夫椒，越王句踐以餘兵，棲會稽山，請爲臣妻爲妾，子胥言不可，太宰伯嚭受越賂，說夫差赦越，句踐反國，懸膽於坐，臥卽仰膽嘗之曰，女忘會稽之恥耶？舉國政，屬大夫種而與范蠡，共治兵事，謀吳，吳宰嚭譖，子胥恥謀不用，怨望，夫差乃賜子胥屬鏤之劍，子胥告其家人曰，必樹吾墓槨，槨可材也。抉吾目，懸東門，以觀越兵之滅吳。乃自刎，夫差取其尸，盛以鴟夷，投之江，吳人憐之，立祠江上，命曰胥山，越十年生聚，十年教訓，周元王四年，越伐吳，吳三戰三北。夫差上姑蘇，亦請成於越，范蠡不可，夫差曰，吾無以見子胥，爲幘冒乃死。

오원은 字가 子胥로 초나라 사람 오사의 아들인데, 오사가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달아나, 오나라 병사가 되어 영(오나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쳤으나, 오왕 합려가 부상당하여 죽었고, 아들 부차가 뒤를 이어 즉위하니 자서는 다시 그를 섬기었다. 부차는 복수에 뜻을 품고 아침저녁으로 쉼나무(薪)에 누워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사람들을 시켜서) “부차야 너는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잊었는가?”라 외치게 하였다. 주나라 경왕 26년에 부차가 월을 부초에서 깨뜨리니, 월왕 구천은 남은 병력을 가지고 회계산에 거처하여 ‘청컨데 자신은 신하가 되고 부인은 첩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태재인 백비가 월나라의 뇌물을 받아 부차에게 월나라를 용서할 것을 설득하였다. 구천이 자기나라로 돌아감에 자리에다 쓸개를 매달고 누우면 즉시 우러러 쓸개를 맛보며 말하기를, “너는 회계의 치욕을 잊었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국정을 들어 대부종과 범려에게 맡기어 함께 군사의 일을 다스리고 오나라를 도모하려 하였다.

오나라의 태재인 백비가 참언하기를 ‘자서가 지난번 꾀가 쓰이지 않음을 부끄러워 원망한다.’고 하니 부차가 이에 축루의 검을 하사하였는데, 자서가 그 집안사람들에게 고하여 말하길, “반드시 내 무덤 곁에 오동나무를 심어, 오동나무가 재목이 될 만하면 내 눈을 도려내어 동문에 걸어놓으면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겠다.”하고 스스로 목을 베 죽었다. 부차는 그 시신을 거두어 포대에 담아 그를 강에 던졌다. 오나라 사람들이 그를 가엽게 여겨 강가에 사당을 세워 서산이라 명명하였다. 월나라가 십년동안 국력을 충실히 쌓고 십년동안 가르쳐서 주원왕 4년에 월이 오를 치니 오는 싸울 때 마다 매번 졌다. 부차는 고소산에 올라가 또한 월나라에 화친(成)하기를 청하니 범려가 불가하다고 했다. 부차는 말하기를 “내가 자서를 볼 면목이 없구나.” 하고 이에 눈을 가리고 죽었다.